

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6. 29

5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2Q NIM 상승추세 지속.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Check Point

- 신규 NIS 축소에도 잔액 NIS 견조
- 2Q 은행권 NIM 2~3bp 상승 예상
- 하반기 금리인상 → 대출금리 반등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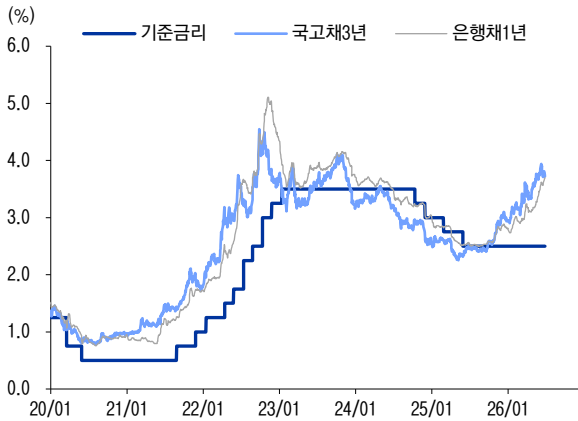
4~5월 수신금리 상승으로 신규 예대금리차 축소에도 잔액 NIS 흐름은 견조

- ▶ 5월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26%(총대출-저축성수신)로 4월 대비 2bp 하락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감. 3월 이후 신규 대출금리 상승은 제한되는 가운데 저축성수신 금리가 반등하면서 신규 NIS가 축소. 5월 중에는 전월에 비해 대출금리가 1bp 하락한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1bp 상승함
-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 5월 2.28%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며 연초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잔액기준 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모두 완만한 반등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5월 중에도 각각 1bp씩 상승. 다만 지난해말 대비 잔액 대출금리는 8bp 상승한 반면 총수신금리는 3bp 상승에 그치며 잔액 NIS 반등추세 유지
- ▶ 5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연초 급등한 이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로는 20bp 높은 수준. 특히 가계 주담대 금리는 4.32%를 기록하면서 규제기조 영향으로 25년 5월 대비 40bp 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음. 반면 기업대출금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bp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더디게 나타남
- ▶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의 경우 5월 중 2.93%로 연초 큰 폭의 하락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월 대비 1bp, 지난해말 대비 3bp 상승에 그치며 조달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일각에서 우려하는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따른 예금이탈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하반기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재개 예상. NIM 전망 긍정적

- ▶ 4~5월 평균 잔액 예대금리차는 2.28%로 1분기(1~3월) 2.26%대비 2bp 상승하며 은행권 2Q NIM 또한 유사한 폭으로 상승이 예상됨. 또한 2분기 중에는 1분기 대비 대출성장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자이익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 ▶ 또한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유력함에 따라 2분기 주춤했던 대출금리 상승흐름이 재개되면서 하반기 NIM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 6월 이후 국고채금리는 금리인상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되돌림으로 조정양상이나 은행채를 포함한 금융채금리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음. 코픽스금리 또한 5월 중 신규/잔액 각각 1~2bp 상승에 그쳤으나 하반기 금리인상과 함께 추가 상승이 예상됨. 코픽스와 금융채금리 모두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음
- ▶ 한편 가계대출의 경우 6월 중순 이후 증시과열 우려로 인한 신용대출 규제강화로 가산금리의 추가상승이 예상됨. 기업대출의 경우 생산적금융 추진에 따른 기업대출 경쟁심화로 가산금리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금리인상 단행시 금융채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 결국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2분기~3분기 초 은행권 NIM은 일시적으로 상승 폭이 주춤할 수 있으나 하반기 금리인상 단행과 함께 대출금리의 추가상승이 예상되어 향후 NIM 전망은 긍정적. 은행권 이자이익 가시성은 높은 상태로 판단하며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유지

그림1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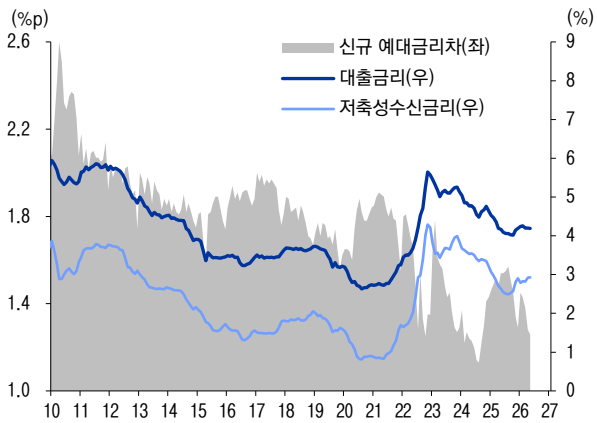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픽스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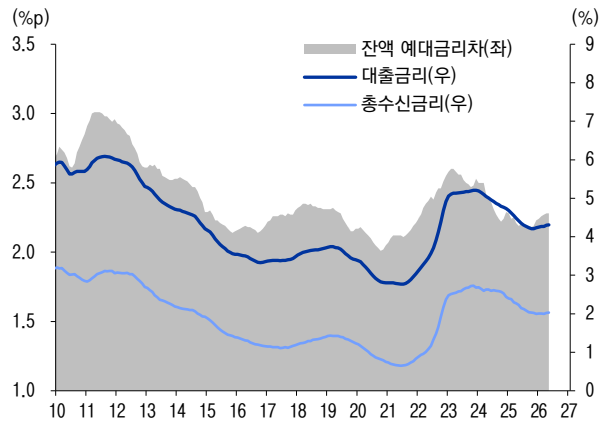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신규 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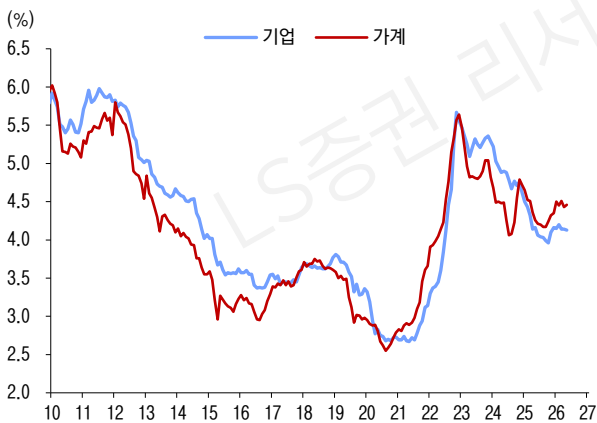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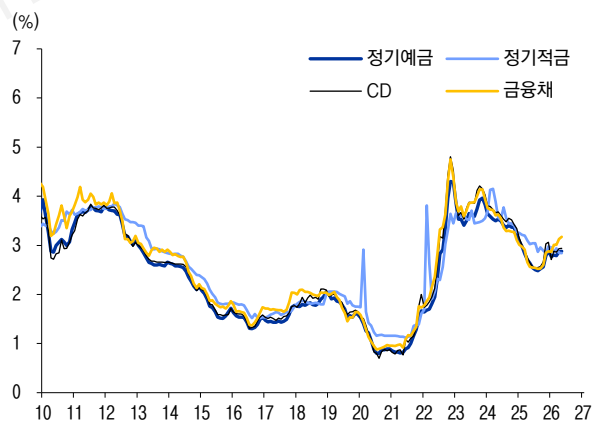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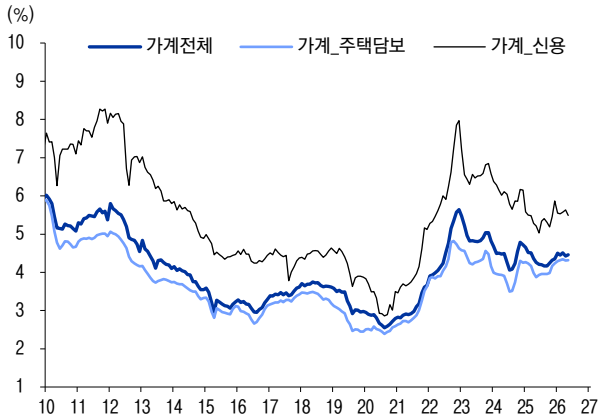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부문별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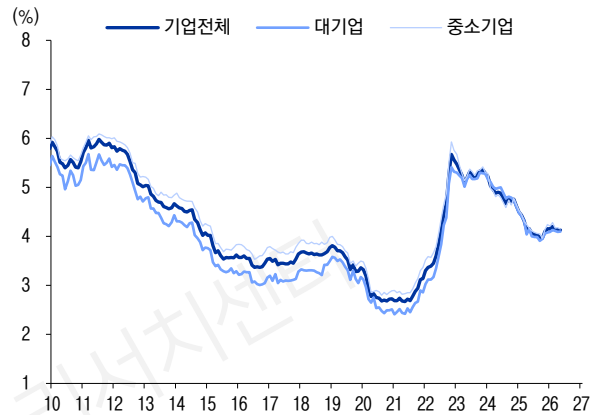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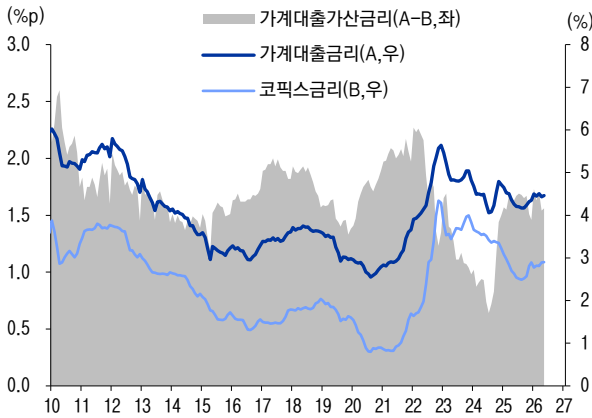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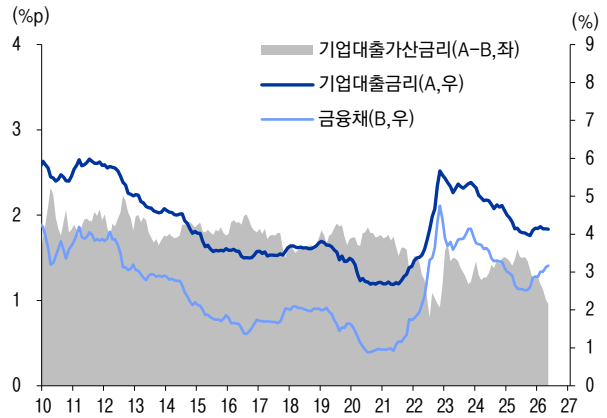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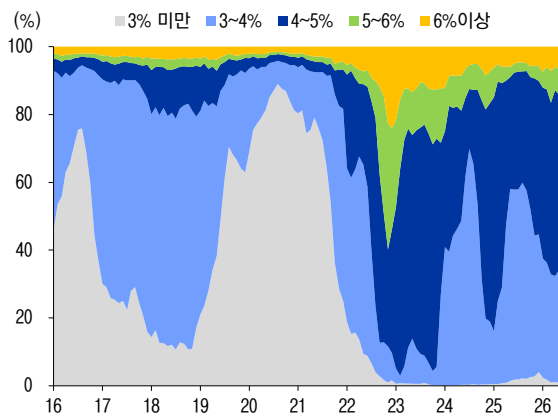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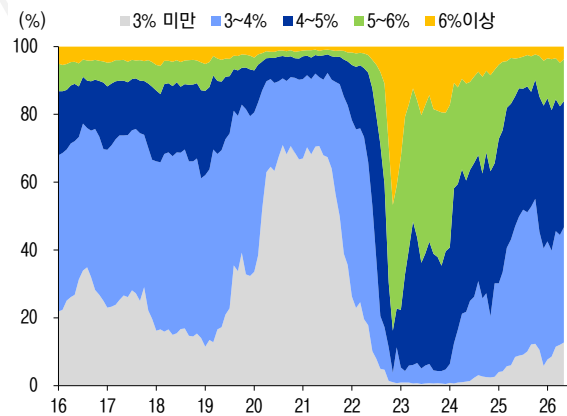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정기에금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0.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